

고된 노동 시달리는 전남 여성어업인

하루 5.5시간 밖에 못자고 바다·집안 일 도맡아 '이중고'

전남여성플라자 조사 ... 연간 어업소득 2000만원 미만 절반

“이 섬이나 저 섬이나 섬은 여자들의 섬이여.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만 많아. 글고 섬에는 여자들 할 일이 너무 많단개. 암튼 남자들한테 섬은 낙원이지만, 여자들한테는 힘든 곳이여.”

전남여성플라자가 최근 출간한 '남도의 섬, 여성의 삶 II'에서 등장한 보성 장도 갑중심(86) 할머니의 말이다.

전남여성플라자가 지난해 건강, 완도, 무안, 신안에 사는 여성 215명을 설문 조사하고 8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성악기 여성 어업인의 수면시간은 평균 5.5시간이었다. 어업 6.4시간, 밭일이나 집주변 관리 3.5

시간, 식사준비 1.7시간, 빨래·청소 등 식사 외 가사 1.6시간, 가족 돌보는 일 1.4시간 등 눈을 뜨면 대부분은 일이었다. 어업 종류에 따라 일과 시작 시각은 달랐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식사준비, 집안일, 어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누구와 일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09명 가운데 128명(61.2%)만이 남편과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자서’(54명, 25.8%), ‘마을사람이나 친구’(22명, 10.5%), 다른 가족이나 친척(4명, 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남은 것이다.

어업, 농업, 집안일, 돌봄일 등 여성어업인들의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역시 어업이었다. 응답자 208명 가운데 140명(67.0%)이 어업을 꼽았다. 연구팀 관계자는 “뿔발을 올리러 간다면 남자가 배를 몰고 여자가 통발을 올리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건져올린 후 다듬고 포장하는 등을 여자가 하기 때문에 일 양으로 봤을 때는 여자들이 훨씬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어업활동 지속의사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71.2%(153명)가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일을 찾기 어려운 요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9명(56.9%)은 어업활동에 만족한다고, 16명은 매우 만족한다(7.7%)고 응답해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연간 어업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 93명(50.6%)으로 전체 응답자(184명)의 절반을 넘었다.

2000만~4000만원 52명(28.3%), 1억원 이상 12명(6.5%) 등 응답 결과로 산정한 월 평균 소득은 약 263만원이었다. 어업활동에 따른 신체 증상(복수 응답)으로는 154명이 어깨결림을 꼽았으며 손발 저림(109명), 어지러움(60명), 두통(57명) 등을 호소했다.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149명(72.3%)이 없다고 답했으며 46명(22.3%)은 1년에 3번 이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여성플라자가 지난 2015년 7월 개최한 ‘농촌마을 공동체, 그리고 여성’에서 여성 농업인 역시 농사일과 가사노동을 맡아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수산업경영인 육성과 양식어가를 위한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에 본격 나선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등이며, 지원 한도는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에 연리 2%, 3년 거주 7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양식어가를 위한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얻어 경영하는 해면·내수면의 어류, 새우, 자라, 패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최대 2억원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3년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5세이상 택시기사 1~3년 주기 자격검사 의무화

앞으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고령임에도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세~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

음주·뺑소니 사망 최대 2억 위자로 지방도 따를 듯

법원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1억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 회의 결과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 지난 3일 밝혔다. 일단 서울중앙지법 내 재판에만 적용되지만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방침이어서 다른 법원들도 위자료 기준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 사드 연내 배치 재확인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지난 3일 회담을 하고 추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연내 배치 운용방향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3월에 시작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전략무기를 전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군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드 배

치와 관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무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내 배치 운용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추한미군 사드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로, 올해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한국 국민, 한국 국민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병력의 보호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 배치 등을 비롯한 방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계획대로 5~7월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사드배치 찬·반 집회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길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찬성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권력 피해 희생자 명예회복·보상 강제 추진

권은희 의원 과거사기본법 발의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울)의원은 5일 진실화해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와 과거사재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법률 제정 이후 4년 2개월간 과거사 규명 활동을 했지만 2010년 활동을 종료했다.

권 의원은 개정법안에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와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명예회복과 보상업무까지 맡도록 위원회의 업



무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거사재단을 설립해 지속해서 진상규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별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다음 주중 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광주시 청년발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시의회에 구성된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더민주·북구 2)의원은 5일 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각종 청년 지원 정책들이 시행 실 국에 산재해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추진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실국 간 협력사업 추진과

교육청·대학·노동청 등 관계기관 조정자 역할에 나선다. 또 청년정책 과제 발굴,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작성 등 핵심사업 추진에도 함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18년 6월 말까지 활동한다. 조오섭 의원은 “청년정책을 역량을 결집하고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우수조례’ 단체 우수상·개인 장려상

광주시의회(의장 이은방)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의 제13회 우수조례 선정 결과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수상 조례는 김동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택, 전진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다.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

진과 지역 사회 발전 기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부문 수상 조례는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다. 국제연합환경계획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 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담은 내용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예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상담 문의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 www.emsolar.kr